



제1회 친환경 총채보리 한우 축제



경종농가와 연계하여 총채보리 생산과 한우 사육 체계구축으로 양질의 지급사료를 확보하여 한우산업의 활성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제1회 친환경 총채보리 한우 축제'가 지난 5

월 9일 전북 김제시 부량면 벽골제광장에서 열렸다.

전북한우협동조합(조합장 장성운)과 농촌진흥청 축산연구소(소장 윤상기)가 주최하고 김



개회사(장성운 조합장)

위한 다채로운 행사 및 공연을 펼쳐 양축 및 경종농가를 위한 즐거운 축제의 한마당을 만들었다.

본 행사에 앞서 전북한우협동조합에서 정성스럽게 준비한 총채보리 한우시식회 및 한우국밥 코너를 준비하였고 전북한우협동조합에서 생산하는 총채보리 섬유질 배합사료를 전시하여 그 우수성을 홍보하였다. 또한 벽골제에 넓게 펼쳐진 보

제시가 후원한 이날 행사에는 곽인희 김제시장과 농림부 이재용 축산경영과장, 양축 및 경종농가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우농가를

리밭에서 행운권을 통하여 송아지를 직접 양축농가에게 선물로 주는 이벤트 행사를 가졌다.



총채보리한우국밥 무료시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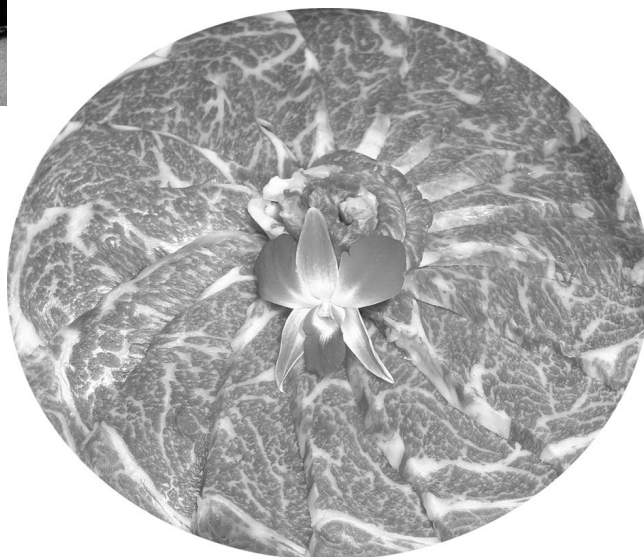
총체보리밭보물찾기(경품 송아지)

제시장은 환영사에서 “양축농가를 위하여 많은 준비와 노력을 하여 우리 한우산업에서 숙원하던 총체보리를 이용한 다양한 사양기술이 보급되어 기쁘고 지역의 한우산업 발전을 위하여 더욱더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농림부 이재용 과장은 축사를 통해 “우리 한우농가의 발전으로 앞으로도 한우산업은 유망하고 지속적인 성공을 이룰 것이다.”라고 하였다.



축산기자재 전시

본 행사의 개회사에서 전북한우협동조합 장성운 조합장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총체보리를 경종농가와 함께 연계하여 우리 한우농가에게 양질의 사료를 공급하여 한우산업의 발전을 이끌고 한우산업에 다가올 시련을 미리 준비하여 극복하자.”라고 말하였으며 곽인희 김



총체보리 한우고기